

종합·해설

선거인단 명부 유출 사건 심각 국면

민주당 광주 광역·기초의원 탈락자 대책위 구성 '선거방해' 수사의뢰·고소... 경선 무효 여부 촉각

민주당 광주시당의 지방의원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 명단 유출 파문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고 있다. 민주당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피해를 입은 후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민주당 관련 당직자를 고소키

로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만약 누군가 선거인단 명단을 고의로 유출한 것이 맞다면, 지역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셈이어서 검찰 수사결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광주지역 광역·지방의원 경선 탈락 후보 40여명으로 이뤄진 '민주당 불법경선 대책위원회(가칭)'는 3일 광주 지검에 민주당 선거인명부 관리책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탈락 후보자들이 개인별로 실시했던 재심신청 또는 수사의뢰가 대책위원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오종태 민주당 광주 북구의원 경선 탈락자는 "민주당

광주시당이 선거인 명부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전에 일부 후보가 미리 선거인 명부를 입수,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1주일 전 시험 문제를 입수, 분석한 수험생과 하루 전에 문제지를 받아본 응시생 중 누가 유리할지는 누구나 아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선 전 선거인단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선거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경선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상당수 후보들이 경선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당한 만큼 확실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 후보 등 민주당 광주시 북구지역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 4명은 지난달 30일 ▲선거인 명단 사전 유출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의 지역위원장 개인 여부, 경선 당선자와 지역위원장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민주당 서구지역 광역의원 경선에 참여했다 탈락한 후보들도 선거 과정의 불·탈법과 선거인단 수의 갑작스런 증가 등을 문제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태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로 이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선 무효로 이어져 재경선이 불가피한데다, 민주당의 부실한 경선 관리 및 무능함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도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1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 남구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선거인단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회의원 명분없는 전략공천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 우물쭈물 무안군수 후보 경선일정도 못잡아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 경선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가 거듭되고 있어 후보들은 물론 군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안군수 후보 경선 연기에 관한 사안을 보고받았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18일 무안군수 후보 경선을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치르기로 하고 경선일 1~2일 전 현지배심원을 모집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조직동원 논란이 일면서 경선 일정이 중단됐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후에 서삼석·정해균 양 경선후보를 불러 경선 방식 수정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최고위원회까지 나왔으나 결론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당 지도부는 가능한 후보들간 합의를 통해 경선을 치르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해균 후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이윤석 의원의 전략공천을 강력히 요구,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윤석 의원이 당직자들과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을 하는 등 불협사나운 모습을 연출해 당 지도부를 당혹하게 하기도 했다. 문제는 명분 없는 전략공천 주장에 당 지도부가 아무런 방한 제시를 못한 채 보름 동안 끌려가고 있다는 점. 양 후보가 경선 방법에 합의를 못하면 당 지도부가 나서서 공정한 경선 방법을 정

하고 이를 시행하면 되는데도 외면해, 책임을 받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애초 도입이 어려운 군지역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기로 해놓고 진행과정에서 어떤 불명이 일어났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거부로 어뢰위한다면 그 후보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전략공천 논의를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선거 끝날때까지 '4대강 홍보' 안한다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를 중단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인 통보에 반발했던 국토해양부가 선관위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까지 4대강과 관련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철도역사 등 다중시설에 설치된 40개 홍보부스는 잠정 폐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관내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4대강 사업 지원협의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홍보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선관위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관도업 국토부 1차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회의 예산 승인을 받고 진행 중인 국책사업인데 선거철이라고 홍보를 중단하라는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다. /연협뉴스

■ 지방선거 핫코너

평민당 광주시장 후보 조홍규 내정

평화민주당은 조홍규(66) 전 관공공사 사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내정했다. 조 전 사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3·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뒤 대중중 정권에서 관공공사 사장을 지냈다. 평화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일 "조 전 사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내정했으며, 3~4일째 후보확정을 발표하고 출마선언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순일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오후 6시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국시멘트 빌딩 5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입 여부에, 경선 당선자와 지역위원장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민주당 서구지역 광역의원 경선에 참여했다 탈락한 후보들도 선거 과정의 불·탈법과 선거인단 수의 갑작스런 증가 등을 문제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태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로 이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선 무효로 이어져 재경선이 불가피한데다, 민주당의 부실한 경선 관리 및 무능함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도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당 전남도당 후보 강성종씨 선출

민주당 전남도당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신안군수 후보로 강성종 전 전남도위원을 선출했다고 2일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군민여론조사와 전 당원 여론조사 각각 50%를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결과 강 후보가 58.50%를 획득해 남상창 후보와 박석배 후보를 제치고 후보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신안군수 선거는 무소속인 박우량 신안군수와 민주당 강성종 후보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최권일·박진표기자 tuim@kwangju.co.kr



황주홍 내일 선거사무소 개소

황주홍 강진군수가 오는 4일 오전 10시 강진읍 남성리 '이메아' 편의점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강진군수 3선에 도전하는 황 군수는 개소식에서 지난 5년간 동안의 군정성과, 앞으로 선거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와 강진발전에 대한 비전 등을 밝히게 된다. 황 군수는 지난 2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임동욱·최권일·박진표기자 tuim@kwangju.co.kr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산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호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5.27.(목) ~ 2010.06.01.(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국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지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연계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역량평가), 자산경영관리사, 건축사, 학사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a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 원 장 이명규 교수 수 062-670-2421
☎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문의/전화 www.grad.kr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